**방언**

금년 (2016년) 여름, 방문객이 몇 주 동안 계속 본 교회에 출석 하였을 때, 방언에 대한 질문을 하셔서, 여러 주일 시간이 소요될 주제이므로, 우선 필요한 서론 부분이 적힌 큰 종이 한 장을 전해 드렸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다음 주일부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의 믿음(**?**)을 시험 하려는 것인지 과시 하려 는 것인지, 오랫동안 여기 저기 다양 한 집회에 참석 하면서, 거짓방언(**?**) 같은 것을 들어 보았습니다.

어떤 학자의 "성경적인 방언의 은사" 이라는 글에 (***Imago Dei,* Tuesday, March 25, 2014** ), 본인이 간략한 댓글을 실었었는데, 여기에 그 댓글을 소개 해 드립니다. 그 댓글의 필명 “옳아클” 은 본인의 것입니다.

방언은 지방 사투리입니다(slang).

방언은 나라나 언어 민족의 피차간에 통역이 필요한 외국어입니다(foreign language).

방언은 영의 지배를 받는 마음의 생각과 뜻이 언어적으로 표현되는 혀 놀림의 방편입니다 (tongue).

영의 지배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진리의 영과 다른하나는 미혹의 영입니다.그래서 지배를 받는 사람의 마음도 진리의 영에 의존 되거나 미혹의 영에 지배를 받거나 각각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 해석상의 방언은 독특 합니다. 성령님의 9 가지 은사중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요6:29) 성령님의 주권적 임의로 주시는 은혜스러운 선물(은사)임으로, 모든 사람에게 은택으로 주시는 긍휼과 구원과 예수라는 하나님의 선물(**은사**)과는 다르며, 이윤이 요구됨으로 발견하고 훈련하고 혁신 해야하는 재능(**달란트**)과도 달리,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나 분수에 맞춰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 주시는 은사 (**은혜로 주시는 선물**) 이므로 발견, 개발, 훈련이 전혀 불필요한, 주시는 그대로 빼지도 보태지도 않고 활용하게 되는 **은사**입니다. 따라서 요구한다고 자기 마음 대로 얻는 것도 아니요, 훈련해서 받는 결과는 더 더욱 아닙니다.

간단한 논평(comment)이니만큼 성령의 9가지 은사를 4 가지만 설명 하렵니다.

1. 지혜의 말씀 ;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로 알리며, 기록된 말씀(**성경**) 으로 문자화 되기전의 하나님의 섭리적(Providence) 지혜의 말씀.

2. 지식의 말씀 ; 선지자도 사도도 아닌 다른 경험자와 연구자(**마가나 누가**)의 증언을 인정해 주심으로 기록된 말씀이 되게하는 하나님의 경륜적(Economic) 지식의 말씀.

3. 믿음 ; 섭리로 알리는 지혜의 말씀과 경륜으로 인지되는 지식의 말씀이 설화로 혹은 문체로 전파됨에, 미혹의 영에 지배받는 방해세력의 저지와 핍박과 살해의 장벽을 뛰어 넘을수 있는 특정인을 정하여 주시는, 일반 그리스도인의 믿음과는 질적으로 다른 순교자의 믿음입니다. (qualitatively difference)

4. 9 가지 은사를 받는 각 사람중에 세번째의 믿음의 은사를 받는 사람과 여덟번째 방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은, 어떤이 어떤이 하는 사람과 질적으로 다른, 성령께서 선별하시는 사람입니다. 예컨대 한국사람이 밀림에 가서 토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듣도 보도 못하고 전혀 배운적이 없는 언어로 토인과 의사 소통이 되어 복음이 전달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정인을 통한성령님의 기적적인 행보에 의하여**). 이러한 기적적인 방언이 성령의 은사로써의 방언입니다. 즉 대부분 자율적 자기 거짓 방언에 반 하여 순수한 타율적 (**성령의 은사로써의**) 방언을 의미 합니다. (엉터리 방언도 방언이라고 우기면 할 말은 없지만,,,.)